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정 상 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교과과정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도 없고 권위적인 이론가도 없으며 필수적인 텍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며 공식적인 역사도 없다. 그러나 그 주장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다문화주의는 미국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지배 문화의 억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종족적, 성적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과 태도를 배양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인다.

“미국인은 누구인가?” 또는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미국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제시했다. 그들의 견해는 다양했지만 미국인은 백인이며 미국은 백인의 국가라는 인식은 거의 한결같았으며, 최근까지도 이 인식은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역사이며 미국문화에 대한 단일하고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단선적인 해석은 없다는 주장은 거의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미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였으며 이 현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역사의 전제였던 미국문화의 독특함과 단일성에 대한 가정과 믿음이 와해되기 시작하고 80년대 후반에 다문화주의가 등장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동시에 때늦은 느낌이 든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다문화주의는 미국과 미국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재성찰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장차 미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미국인들이 지닌 의구심과 회구심, 그리고 그 당위성 여부에 대한 그들의 회의와 희망을 나타낸다. 다문화주의는 특별히 새로운 개념이나 선언이라기보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 미국인들의 일상적 경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근의 학문적 결과가 널리 인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논리적 귀결은 지금까지 지속된 백인 남성의 지배를 종결짓고, 여태까지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집단의 정체성,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2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들 비판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와 주장을 미국 사회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으로 보며, 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미국문화의 동질성에 입각한 교양교육을 제시한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표준영어와 산업 기술을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대한 서구문명의 전통을 대변하는 고전을 읽힘으로써 다원적인 학생 집단에 공동의 문화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주의의 비판

자들은 높은 지적 수준을 내세우고 문화와 학문을 이념적 편향성보다 우위에 둔다. 그들은 다문화주의자들이 인종, 민족, 성을 정체성의 유일한 구성요소로 찬미하고 차이의 중요성을 과장한다고 여긴다. 결국 다문화주의가 기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문화를 분열시키며 그 결과 신종족주의가 미국사회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

리처드 번스타인(Richard Bernstein)에 의하면 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은 정치적 야망과 권력추구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960년대의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이상향에 대한 유희를 뿌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환상의 세계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미국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거나 유럽중심주의적인 가부장제와 그 지배전략에 의해 강요된 패권구조에 공모한다는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자들은 차이와 다양성의 포용을 구호로 내세움으로써 비판자들을 수세에 몰아넣는 효율적인 정치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번스타인은 주장한다.²⁾

이러한 용기를 가진 지식인으로 흔히 디네쉬 드수자(Dinesh D'Souza)와 아더 슐레진저(Arthur M. Schlesinger, Jr.)가 거론된다. 드수자는 인도 태생으로 17세 되던 1978년부터 미국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민자이고 소위 유색 인종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백인 남자와는 달리 솔직하게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다. 먼저 그는 인종차별과 종족중심주의가 시대와 지

1) E.D. Hirsch, Jr.,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Boston: Houghton, 1987), Allan Bloom,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How Higher Education Has Failed Democracy and Impoverished the Souls of Today's Students* (New York: Simon, 1987), William J. Bennett, *The De-valuing of America: The Fight for Our Culture and Our Children* (New York: Summit Books, 1992) 등 참조.

2) Richard Bernstein, *Dictatorship of Virtue: Multiculturalism and the Battle for America's Future* (New York: Knopf, 1994), pp. 3-11.

역에 관계 없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는 흑인들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 흑인들이 노예제하에서 생존하기 위해 형성한 문화가 오늘날에는 역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주의의 잔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흑인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며, 이는 흑인 참모총장, 대법원 판사, 주지사 등의 경우를 보면 명백하다. 따라서 드수자는 흑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병리 현상을 극복하고 다른 집단처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들이 열등하다는 합리적인 사회적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차별철폐조처(affirmative action)가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흑인들의 학업 성취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위장하고 있을 뿐이고, 인종차별주의를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은 흑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예제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발언을 하는데, 노예제는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사회에서 존재하던 제도였고, 노예제와 관련하여 서구 사회의 특징은 오직 서구 사회에서만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도덕적인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며, 이 운동이 나중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으로 전파되었다. 비서구 사회는 평등과 관련하여 자생적인 전통이 전무했다. 이들 국가는 종족주의와 사회적 계층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다. 인도의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 사티 제도에 따라 남편이 죽으면 신부를 함께 불에 태워 죽였다. 중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전족이 성행했고 회교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는 거부되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의 성기를 손상시켰다. 평등과 관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 비서구 국가는 내세울 것이 없으며, 그들의 고전도 마찬가지다. 인도, 중국, 일본, 이슬람의 고전은 서구의 고전보다 훨씬 편견과 아집에 가득 차 있으며, 이런 책들은 다문화주의가 옹호하는 차이와 다양성의 관용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들이 비서구의 고전을 읽을 경우 이러한 이상에서 퇴행하는 결과를 낳는다.³⁾ 드수자가 다문화주의

에 비판적인 많은 유럽계 미국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시원하게 대신해준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역사가인 슐레진저는 미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유럽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역사를 조작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슐레진저는 개인의 자유, 정치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문화적 자유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가 다른 사회의 가치보다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미국인들에게는 더 낫다고 믿는다. 그는 17세기에 끄레비피르(St. Jean de Crevecoeur)가 제기했던, “그렇다면 미국인, 이 새로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질문에 대하여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모든 민족의 개인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용해된다.”는 끄레비피르의 답변이 “여전히 훌륭한 대답이며, 여전히 최선의 희망”이라고 여긴다.⁴⁾ 슐레진저는 엄청나게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낸 데 미국의 역량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철학적인 통합력과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실질적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이지 신성한 종족 공동체에 기반을 둔 국가가 아니다. 세계 도처에서 인종적, 민족적 적대감으로 미개한 전쟁이 벌어지는 현시점에서 극도로 다양한 인종과 종족이 한 국가를 형성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사명이라고 슐레진저는 주장한다.

3) Dinesh D'Souza, *Illiberal Education: The Politics of Race and Sex on Campus* (New York: The Free Press, 1991), pp. 1-23, 229-57와 *The End of Racism: Principles of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pp. vii-iv, 33-36, 337-86, 525-56. 드수자의 과장 및 왜곡 경향과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는 Jon Wiener, “What Happened at Harvard,” in *Beyond PC: Toward a Politics of Understanding* ed. Patricia Aufderheide (Saint Paul: Graywolf Press, 1992), pp. 97-106.

4) Arthur Schlesinger, Jr.,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Norton, 1991), p. 137-138.

3

슬레진저와 같은 대표적인 자유주의자가 다문화주의에 보이는 민감한 반응은 다문화주의가 단지 민속적인 음식, 의상, 춤 등과 같은 일상 생활과 관련된 문화적인 항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의 뿌리가 아프리카에 있었고 미국의 정치 제도가 아메리카 인디언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주장과, 이 주장에 근거하여 실제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시도 때문에 나온 것이다. 마틴 버날(Martin Bernal)은 인종적, 지리적, 언어적 근거 등을 내세워 근본적으로 아프리카 문명인 이집트 문명이 서구 문명의 기반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집트인들은, 특히 강력한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들은 “유용하게 흑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버날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의 의학이 그리스 의학의 기반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고대 이집트의 기하학이 그리스 기하학의 기반이었으며 플라톤, 유클리드 등이 합리적인 사고의 모델로서 천문학적 모델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고대 이집트 사상이 기반을 제공했다. 버날에 의하면 그리스인들은 “문화적 자존심”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받은 영향력의 정도를 축소시켰다.⁵⁾ 인종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18세기와 19세기의 유럽 학자들은 그리스가 이집트와 근동 지역에 받은 문화적 영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유럽의 고대사 연구자들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서구 사상의 근원이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여태까지 억압된 이유는 유럽인들이 노예 노동을 도입하고 아프리카인들이 문명과는 거리가 멀고 노예제에 적합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몰레피 아산테(Molefi Kete Asante), 재니스 헤일 벤슨(Janice Hale-

5) Martin Bernal,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 The Fabrication of Ancient Greec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87), p. 242, 84;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1).

Benson), 아사 힐리아드(Asa Hilliard) 등 아프리카중심주의자(Afrocentrist) 들은 유럽중심적인 시각을 아프리카중심적인 시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산테에 의하면 유럽 제국주의의 형성은 “유럽의 노예 무역, 문화적 오만, 반유대주의, 반아프리카주의, 인종차별주의적인 과학, 문학, 역사”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⁶⁾ 따라서 유럽중심주의에 의해 오염되기 전의 아프리카의 이상과 가치를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문자 전통보다는 구전 전통에 의존하고, 사물에 대해 부분적이기 보다 전체적으로 반응하며, 연역적이거나 귀납적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추론한다. 또한 사물이나 사물에 대한 개념보다는 인간과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보다는 가족과 집단을, 그리고 경쟁보다는 조화를 중요시한다.⁷⁾ 요컨대 유럽의 인종차별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기 이전의 아프리카인들의 이상과 세계관이 서구의 그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우월했다는 것이다.

토머스 라일리(Thomas Riley)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은 이러코이 5국 연맹(Five Nation Confederacy of Iroquois League)이 미국 연방제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15세기 중엽 모혹(Mohawk), 오네이다(Oneida), 오논다가(Onondaga), 카유가(Cayuga), 세네카(Seneca) 등 독립된 5개 국가로 구성된 이 연맹은 한 국가 내에 여러 국가가 내부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는 연방으로서 영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코이 사회에 구현된 아동복지, 여성 참정권, 사형제도의 폐지 등 일부 사상은 휴잇(J. N. B. Hewitt)이 이미 1918년에 지적했듯이⁹⁾ 미국 헌법 제정자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6) Molefi Kete Asante, “On the Wings of Nonsense,” *Black Books Bulletin: WordsWork* 16 (1993-94), p. 40.

7) Asa Hilliard, *Alternatives to IQ Testing: An Approach to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Minority” Children*, Final Report to the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76), pp. 38-39.

8) Thomas Riley, “History and Foodstuffs,” *National Review*, November 19, 1990, p. 4.

9) J. N. B. Hewitt, “A Constitutional League of Peace in the Stone Age of America: The League of the Iroquois and Its Constitution,”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인물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다.

이 두 사항 모두 학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¹⁰⁾ 유럽계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 문화의 뿌리가 아프리카에 있고 미국 정치 제도의 근원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인종적 자긍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유럽과의 접촉이전에 800만에서 1,800만 명 정도의 원주민이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었고, 그 가운데 95퍼센트가 사망했으며, 유럽과의 접촉 이후 희생된 전체 흑인의 숫자가 3,600만에서 6,000만에 이른다는 최근 일부 역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주장을 고려한다면,¹¹⁾ 그리고 미국 혁명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원주민의 학살과 노예제도가 필수조건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¹²⁾ 위의 주장들을 수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제거하는 첫 단계였음을 상기할 때, 그들이 인간

Regent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1918, pp. 527-45.

- 10) 비난의 저서에 대한 비판으로는 Mary R. Lefkowitz, *Not out of Africa: How Afrocentrism Became an Excuse to Teach Myth as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1996)과 Mary R. Lefkowitz & Guy MacLean Rogers, eds. *Black Athena Revisited*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을 참조. 이리코이 연맹이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논쟁에 관해서는 Jose Barreiro, ed. *Indian Roots of American Democracy* (Ithaca: American Indian Program Cornell University, 1988), Elizabeth Took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the Iroquois League," *Ethnohistory* 35 (1988), pp. 305-36, 그리고 Bruce E. Johansen, *Forgotten Founders: Benjamin Franklin, the Iroquois, and the Rationale for the American Revolution* (Ipswich, MA: Gambit, 1982), "Native American Societies and the Evolution of Democracy in America, 1600-1800," *Ethnohistory* 37 (1990), pp. 279-90, Bruce E. Johansen and Donald A. Grinde, Jr., "The Debate Regarding Native American Precedents for Democracy: A Recent Historiography," *American Indian Culture and Research Journal* 14 (1990), pp. 61-88, Bruce E. Johansen et al., *Debating Democracy: Native American Legacy of Freedom* (Santa Fe, N. M.: Clear Light Publishers, 1998) 등을 참고하기 바람.
- 11) David E. Stannard, *American Holocaust: The Conquest of the New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x, 11, 317.
- 12) 줄고, "'Virgin Land' and the Peculiar Institution: Ideological Origins of Jefferson's Republic," *Journal of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24 (1993), pp. 30-47 참조.

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지녔던 허위의식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서구 문화의 뿌리가 그들의 조상에게 있었다는 주장은, 그들이 미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할 경우에는, 이국적인 문화 요소를 지님으로써 다양성을 인정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4

다문화주의자들은 문화가 특정한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 다양한 집단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 생겨난 산물이라고 여긴다.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간의 대화에서 생성되고 서로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갈등과 절충, 자기형성 및 재형성”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모한다.¹³⁾ 따라서 다문화주의자들은 다양한 문화간의 유동적인 균형을 조장하고 보존하며 불완전한 균형 속에서 충돌과 대화를 통해 그 모습을 끝없이 변형시켜 나가고자 시도한다. 헨리 루이 게이츠(Henry Louis Gates, Jr.)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변형과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한 사회의 장래를 위해 어떤 문화가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논쟁은 정치적인 논쟁이며, 어떤 교육과정으로 그 문화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가 정치적이라는 다문화주의 비판자들의 비판은 공허하다. 사실상 정치적인 고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과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교육이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3) Henry Louis Gates, Jr., “Beyond the Culture Wars: Identities in Dialogue,” *Profession* 93 (1993), p. 11.

가지다. 민주주의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관한 논의도 정치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¹⁴⁾

이러한 정치적 논의에서 많은 다문화주의자들은 개별문화가 지닌 다양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존중하면서 바람직한 변형의 모습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교육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그들은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미국과 미국인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고, 인종적, 성적 억압과 희생의 역사에 대해 섬세한 감수성을 배양하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한 개인이 다른 집단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문제,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단일성을 추구하면서 개별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한다. 이러한 입장은 교육의 사회 개혁 기능에 입각하여 학자들이 다문화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결국 다문화주의적 태도와 감수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전파되어 사회 전체가 변화하리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다문화주의에 관련된 논쟁은 199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교육받은 중산층 이상의 독자들이 많이 읽는 『뉴욕커 *New Yorker*』, 『하퍼즈 *Harper's*』, 『뉴리퍼블릭 *New Republic*』, 『타임 *Time*』, 『네이션 *Nation*』 등과 같은 정기 간행물에서 다문화주의가 거론되는 횟수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기사가 1990년에는 12편, 1991년에는 65편이었고, 1992년부터 96년까지는 40편에서 70편 가량 되던 것이 1997년에는 9편으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더욱 줄어들었다.¹⁵⁾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주의가 일종의 유행에 불과했고 강력한 미국 사회의 지배 문화의 존재로 인해 미국인의 의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린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

14) Henry Louis Gates, Jr., "Pluralism and Its Discontents," *Profession* 92 (1992), p.37

15)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 90 (1990), 91 (1991), 92 (1992), 93 (1993), 94 (1994), 95 (1995), 96 (1996), 97 (1997) 참조.

만, 다문화주의의 주장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육 과정에 반영되고 미국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제도화된 상황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해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대표적 비판자 가운데 한 사람인 허쉬(E.D. Hirsch)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 편집한 “핵심 지식 시리즈(Core Knowledge Series)”를 살펴보다도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양성과 소수 피지배 집단의 시각을 포함하는 등 다문화주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5학년생이 알 필요가 있는 것들 *What Your 5th Grader Needs to Know*』편의 세계 문명 부분을 보면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 문명과, 유럽과 비유럽 문화의 접촉과 갈등에 각각 약 25%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미국 문명에 대해서는 “서부로의 확장(Westward Expansion)”이라는 소제목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At What Price?)”라는 부제를 붙이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에 대해 기술한 후 유럽계 미국인과의 접촉을 원주민의 시각을 포함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¹⁶⁾ 또한 『6학년생이 알 필요가 있는 것들 *What Your 6th Grader Needs to Know*』편의 미술 부분에서는 피카소와 추상파 화가 등과 함께 나바호(Navajo) 인디언의 회화와 나이지리아의 요루바(Yoruba) 출신 조각가의 작품이 실려 있다.¹⁷⁾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제공되는 과목과 그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이 소수 집단과 다양한 문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바뀌고 있다.¹⁸⁾ 다문화주의를 다룬 책들의 제목을 보더라도 폐쇄, 와해, 전투, 문화 전쟁 등 초기의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태세와는 달리 열림, 종족주의의 극복과 다문화주의로의 수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16) E.D. Hirsch, Jr., ed. *What Your 5th Grader Needs to Know: Fundamentals of a Good Fifth-Grade Education* (New York: Delta, 1993), pp. 107-34, 192-207.

17) E.D. Hirsch, Jr., ed. *What Your 6th Grader Needs to Know: Fundamentals of a Good Sixth-Grade Education* (New York: Delta, 1993), pp. 238-54.

18) Liza Fiol-matta and Mariam K. Chamberlain, eds. *Women of Color and the Multicultural Curriculum: Transforming the College Classroom* (New York: The Feminist Press, 1994)에 소개된 다양한 교육과정과 강의계획서를 참조.

알 수 있다.¹⁹⁾

다문화주의자들은 이론적으로 인종, 성, 계층 등의 범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계층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성의 문제도 부각은 되었지만 인종 문제처럼 폭발적인 잠재적 위협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다문화주의보다는 다인종주의라는 용어가 현실을 더 제대로 반영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다인종주의 대신 다문화주의를 사용한 것은 다인종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어쩌면 인종적인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의 인종 문제가 흑백간의 문제가 아닌 유럽계,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등 여러 인종 및 종족간의 복잡한 갈등 양상을 띠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흑인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인종간의, 또는 종족간의 결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흑인과의 결혼은 다른 집단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가 타인종과 결혼하는 비율은 25%~30%에 이르면 흑인의 경우는 5~10%에 불과하다.²⁰⁾ 전통적인 메타포를 사용하면 미국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흑인들의 독특한 속성은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로드니 킹(Rodney King)을 구타한 백인 경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됨

19) Bloom,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1987), James Davison Hunter,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91), Schlesinger, *The Disuniting of America* (1991), Richard Bolton, ed. *Culture Wars: Documents from the Recent Controversies in the Arts* (New York: New Press, 1992), Bernstein, *Dictatorship of Virtue: Multiculturalism and the Battle for America's Future* (1994) 등의 제목과 David A. Hollinger, *Postethnic America: Beyond Multiculturalism* (New York: Basic Books, 1995), Lawrence W. Levine, *The Opening of the American Mind: Canons, Culture, and History* (Boston: Beacon Press, 1996), Nathan Glazer, *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Arthur M. Melzer et al., *Multiculturalism and Democracy*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8) 등의 제목을 대조해 보면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20) Richard Alba, "Mixed Babies," *American Demographics* (June 1994), p. 39; "Assimilation's Quiet Tide," *The Public Interest* (Spring 1995), p. 17.

으로써 1992년에 촉발된 L. A. 사태는 다른 인종들 간의 문제도 개입되어 있었지만 흑인에 대한 미국사회의 인식을 잘 드러낸 사건이었다. 또한 1999년 만하더라도 사복 차림의 흑인 경찰이 동료 경찰에게 범죄자로 오인되어 총격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코네티컷주에서 일어났고, 무장을 하지 않은 아프리카 이민자가 역시 범죄자로 오인되어 40여 발이 넘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지만 그 경관들은 무죄로 방면된 사건이 뉴욕주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교육과정이 다문화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일상에서 인종간의 평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럽계 미국인이 인종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떻게 발언하든지 마음 속 깊이 흑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²¹⁾ 또한 그동안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코넬 웨스트(Cornel West)와 게이츠가 주장하듯이, 흑인의 존재는 미국과 미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독특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무엇보다도 미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듀보이스(W.E.B. Du Bois), 썬구드 마셜(Thurgood Marshall) 대법원 판사,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 등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존재를 배제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고 무의미하다. 노예 시대부터 지금까지 흑인들의 경험은 보통 사람이 최고의 수월성과 품위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실천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한 기회라는 자족적인 수사 아래 깔려 있는 야만성”을 미국 사회에 상기시킨다. 그리고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회피

21) 오늘날 교육을 받은 많은 미국인들은 인종적인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따라 발언할 정도의 감수성은 갖추고 있다. [Howard Schuman et. al., *Racial Attitudes in America: Trends and Interpret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 2.] 공적인 발언이나 설문지나 면접을 통해 흑백 상호간의 인식을 가능하는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는 특히 2장, 3장, 5장을 참조할 것.

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 그리고 비참하고 슬픈 냉정한 현실에 기반을 두고, “감상적인 목표와 낭만적인 꿈”으로 이루어진 미국 사회에 비극적인 감수성을 일깨우며 미국 사회의 성숙함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²²⁾ 그것은 또한 민주주의가 단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평등에 관심을 가진, 공동선과 복지를 존중하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통치”를²³⁾ 의미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인간다움을 인정하고 함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적이라면 다문화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인간다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개인의 경우 체험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주의는 실용주의 철학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실용주의는 무엇보다도 각 개인이 아직 진화되고 있는 세계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어떤 전통보다도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²⁵⁾ 특히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실용주의는 삶에 대한

22) Henry Louis Gates, Jr. and Cornel West, *The African American Century: How Black Americans Have Shaped Our Country* (New York: Free Press, 2000), pp. xiii-xv.

23) Benjamin R. Barber, *Jihad vs. McWorld: How Globalism and Tribalism Are Reshaping the World* (New York, 1995), p. 223.

24) 다문화주의와 실용주의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Arthur M. Melzer et. al. eds. *Multiculturalism and American Democracy*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8)의 Part II. Multiculturalism an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참조.

25) 실용주의와 민주주의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적한 최근의 논문으로는 Richard Rorty, “Pragmatism as Romantic Polytheism,” Robert B. Westbrook, “Pragmatism and Democracy: Reconstructing the Logic of John Dewey’s Faith,” Richard J. Bernstein, “Community in the Pragmatic Tradition,” in *The Revival of Pragmatism: New Essays on Social Thought, Law, and Culture*, ed. Morris Dickstei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pp. 21-36, 128-40, 141-56과 Hilary Putnam, “A Reconsideration of Deweyan Democracy,” in *Renewing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2) 등을 참조.

비극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²⁶⁾ 이 세상은 위험과 우연으로 가득 찬 공간이며 인간은 자신의 불안정한 존재를 규정하고 통제하고 예측하기 위해 관념을 동원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패배와 절망, 환멸과 상실의 요소를 회피할 수 없으며 그것은 삶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 삶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며 삶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이러한 어두운 요소들이 남아 있다. 요컨대 제임스의 실용주의는 이 세상에서 회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제임스에게는 가능성과 희망을 남겨 놓는 시도였고, 패배와 환멸과 절망의 순간에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타자의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닐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이나 집단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닐 때 진정한 다문화적인, 민주적인 사회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26) Sidney Hook, *Pragmatism and the Tragic Sense of Life* (New York: Basic Books, 1974), p. 5.

〈Abstract〉

Beyond Multiculturalism

Jeong, Sangjun

Since the late 1980s multiculturalism has gained wide currency as a term which represents new sensibility and attitude towards cultural, racial, ethnic, and sexual differences. It has become the locus of debates regarding the national identity and curricula. Many critics denounce it because it does not merely advocate the diversity of food, clothing, and others, but presents a radically different view of cherished American traditions. Multiculturalists in general support such claims as Five Nation Confederacy of Iroquois League may have been a model for the American federal system, ancient Egyptian thought was the basis of Greek thought and thus Western and American civilization is rooted in African civilization, and slavery and genocide of the Native Americans were main pillars of American democracy.

The controversy over multiculturalism has been somehow subdued since the mid-1990s. That is because much of multiculturalist ideals has been institutionalized, at least on surface, in various sectors of American society. Racial relationship, particularly that between Afro-Americans and Euro-Americans, however, provides a different picture of the apparent success story of multiculturalism. The ingrained racial conflict seems difficult to resolve in the near future, but the

resolution is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genuine multiculturalist society because multiculturalism is nothing less than practicing democracy and American democracy is vacuous without the Afro-American experience. Ideals of multiculturalism could be realized only when along with their institutionalization, people can share the sufferings of other groups, racial or sexual.